

'제5기 전주시 인권위원회' 가동

신규위원 위촉식·첫 회의 갖고 인권 시책 발굴·인권 보장·증진 위한 본격 활동 돌입

전주시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설 '제5기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전주시는 지난 20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활동에 나설 '제5기 전주시 인권위원회'의 신규위원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5기 전주시 인권위원회는 이날 위촉된 신규위원 6명과 당연직 위원(감사담당관, 생활복지과장) 2명, 전주시의원 1명, 기존 위촉위원 5명을 포함한 총 14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들은 앞으로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권위원들은 전주시 인권 문제에 대해 총괄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특히 △노동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인권위원들은 인권 취약계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모든 시민의 인권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주시는 지난 20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활동에 나설 '제5기 전주시 인권위원회'의 신규위원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규위원 위촉에 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또, 인권 보장 및 증진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전주시민의 차별화된 인권 시책 발굴과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인권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책을 실현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인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수어로 소통하는 문화축제 열려

전주시·전주시수어통역센터, 제8회 수어문화제 개최

전주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손의 언어인 수어로 함께 소통하는 문화축제가 열렸다.

전주시와 전북농아인협회 전주시지부 전주시수어통역센터(센터장 이현석)는 지난 21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수어를 통한 소통과 나눔의 축제인 '제8회 전주시 수어문화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전주시 수어문화제는 수어를 통해 문화와 예술을 공유하고, 농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농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수어는 어울림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올해 축제는 농인과 비농인이 함께 어울리며 농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농인의 인권 증진과 장애인 복지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와 수어 발표회,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수어 공연과 체험 부스의 경우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수어를 배우고 농인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현석 전주시수어통역센터장은 "이번 문화제는 농인과 비농인이 함께 소통하며 문화를 이해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전주시는 앞으로도 농문화와 수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넓히고,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이 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월드컵골프장 클럽하우스에 부착된 '실내 공기 질 우수시설' 인증 현판

전주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연상 후보자 '적합' 의견

경과보고서 작성해 오늘 전주시에 전달 예정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지난 20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인 이연상(65)씨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적합' 결론을 내렸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최주만 부의장)는 20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임명후보

자의 경영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특히 의원들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초고령사회 대비 인력 운영, 인공지능 및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공단의 당면 과제 해결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

하며 후보자의 자질을 확인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검증 결과에 따른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23일 전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위원장 최주만 부의장, 부위원장 이국 의원을 비롯해 김성규·김세혁·김정명·김현덕·박혜숙·송영진·이기동 의원 등 9명이다.

최주만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체육, 장사, 주차 등의 공공시설 물을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현실적인 경영 계획 등에 주안점을 두고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했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능력있는 기관장들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월드컵골프장 클럽하우스 공기 질 '우수'

전주시시설공단, GA(Good Air) 실내 공기 질 우수시설 인증 획득

지난 20일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월드컵골프장은 최근 한국실내환경협회로부터 클럽하우스에 대한 'GA(Good Air) 실내 공기 질 우수시설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2년이다.

GA 실내 공기 질 인증은 한국실내환경협회와 국가 공인 시험기관인 KOTIT시험연구원 등이 공동 개발한 실내 공기 질 인증 시스템이다.

이용 공간의 실내 공기 질과 그 관리 수준, 관리자의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인식과 운영시스템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월드컵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시설 운

영 분야 심사와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월드컵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지난해 9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공조기 전체를 교체해 실내 질 환경을 향상했으며, 올해 실내 공기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정주 월드컵운영부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실내 공기 질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이 더욱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

보육교직원 노고 치하 유공자 표창·체육대회 등 열려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문필레)는 지난 21일 덕진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보육 교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42개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470여 명과 내·외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필레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문을 연 이날 한마음대회는 보육교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보육인으로서의 결

의를 다지는 △유공자 표창 △대회사 △격려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한 보육교직원들은 체육대회를 통해 화합을 다지고,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인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보육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육 지원 및 맞춤형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저출산, 유보통합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보육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는 보육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